

전 남

민선 5기 단제장에 듣는다

황주홍 강진군수

“전남산 한약재 특산화·단지화해야”

“생산자단체 육성 등 유통구조 개선도 필요”

약용작물 심포지엄

전남산 한약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 특산화·단지화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생약농협 김병중 조합장은 15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한계농지를 이용한 약용작물의 소득화 전략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에 앞

서 배포한 주제 발표문을 통해 “중간상인에 휘둘리지 않고 생산자단체 협의에 안정적으로 수매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약용작물은 50여개 품목으로 재배면적은 1000~1200ha에 달한다.

하지만 단지화된 품목은 결명자(장흥)·택사(순천)·시호(고흥)·산수유(구례)·구기자(진도)·지황(화순)

등에 불과한 상태이다.

김 조합장은 “전남 생약농협과 생산자단체 등이 한약재 생산이 많은 때는 자체 수매해 ‘저수지’ 역할을 하고, 생산량이 적을 때는 종자를 보급해 꾸준한 생산되도록 도와야 하지만 수매자금 부족으로 예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업인들이 정보부재로 소비동향과 생산동향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없어 중간상인 말만 듣고 헐값에 팔기도 한다”며 “생산자단체를 육성해 자율적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품질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업정책·대학교·수·연구기관·산업체·재배 농업인·유통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계농지를 이용한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방향 ▲약용작물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 방안 ▲국산 한약재 유통 현황과 전남 산 한약재 경쟁력 제고방안 등 4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 박국필 미래농업연구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계농지 등을 이용한 한약재 원료 약용작물의 재배면적 확대와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창출할 전략개발 방향을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2013년 청자엑스포 개최 주력”

황주홍 강진군수는 “정직한 영농, 정직한 축산, 정직하고 친절환영업, 정직한 행정보다 더 좋은 브랜드 가치와 브랜드 파워는 없을 것”이라며 “인사청탁 근절과 각종 공사와 용역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과정 등 전 과정에서 가장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민선 5기 취임소감을 밝혔다.



나고 있다”며 “인재육성의 토대로 이미 170억 원의 장학금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도시수준의 교육환경 투자로 지역 학교보내기와 지역명문고 육성 등 교육을 전국최고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군수는 전국 수준인 스포츠 마케팅과 관광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환경을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황 군수는 “전국 1위인 메디컬 허브 출산정책과 귀농·귀촌 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보존가족·장애인 가족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300세대 추진,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선진적 복지행정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황군수는 제조업공장 100여개 유치실행 계획으로 3000여 명의 고용인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선진 산단과 칠량 농공단지 등을 비롯한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새로운 지평을 찾아 개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군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섬김과 나눔의 자세, 생각과 행동이 젊고 올바른 자세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청자특구 원성·도예촌 조성 차질없이 추진 지역명문고 육성·메디컬 허브 출산정책 심혈

방의 청자 매출액 또한 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진청자 해외전시는 지난 2006년 프랑스 유네스코본부 특별전을 시작으로 ▲2007년 일본 6개 도시 ▲2008년 미국 6개 도시 ▲2009년 유럽 8개국 9개 도시에서 순회전을 여는 등 청자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투자했으며, 이를 기반 삼아 2013년에는 청자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황 군수는 청자엑스포 기반조성 사업인 청자특구 사업완성과 도예촌 조성을 강조하며 국도 23호선

확장 포장·청자 현대미술관·청자타워 건립 등 부대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황 군수는 “앞으로 4년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농림축수산업 예산을 35%까지 끌어올리고, 친환경 소득증대사업 등 농가소득을 매년 100여 개 증대 해갈 것”이라며 “강진의 농업 현실을 결코 어둡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무엇보다 미래의 자산인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3년 연속 서울대합격 등 연이은 명문대생 배출로 이미 성과가 나타

“광양항을 한눈에” 입체지도 나온다 칸공단 9월부터 서비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이상조)은 광양항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수해화풍으로 표현한 ‘광양항 입체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광양항 입체지도는 광양항을 비롯해 ▲여수항 및 배후물류단지·인접 시설 ▲항만관련시설이 수록된다.

칸공단은 항만공사 설립 이후에도 입체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수항을 포함해 제작하며, 항만개발 및 추가 인접시설 확충시에도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또 홈페이지에 광양항·여수항 및 인접 시설의 사진, 동영상·보도자료를 연계해 서비스하고, 모바일 전용 서비스도 10월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입체지도는 9월 초부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홈페이지(www.kca.or.kr)를 통해 신청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청수기자 choung47@



“편백숲에서 기차놀이 해요” 동생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지역 유치원생들이 팔영산 편백나무숲에서 기차놀이를 하고 있다. 고흥군은 앞으로 숲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숲속학교’를 초·중·고(고흥군 제공)

‘나주 계약직 채용’ 행안부 감사 착수

임금 소급 지급 등 적법... 관련 공무원 징계 불가피

나주시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임 시장의 측근이나 시청고위직 일부의 자녀 등 특정 계층의 자녀를 집중 채용했다는 보도(7월 5일자 11면)의 보도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사무관급 1명과 6급 직 2명 등 3명을 나주시에 파견, 계약직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감사팀은 계약직 직원

을 비공개로 채용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비롯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등 특정 계층의 자녀를 집중 채용했다는 보도(7월 5일자 11면)의 보도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감사 첫날인 12일에 채용 과정에 관여된 사무관을 비롯해 팀장 2명에게 문답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은 전·현직 과장과 계약직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행안부 감사팀이 해당 공무원에게 문답서를 받을 경우 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 알려져 있어 이번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된 공무원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감사팀이 당초 12일 하루 정도 감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3일까지 감사가 계속됐다”며 “계약직 직원의 채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있어 전·현직 부서의 과장과 계약직 담당자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대형 수산물 특화시장 여수 남산동에 문열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여수에 대규모의 수산물 시장이 문을 연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여수시 남산동에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수산물 특화시장을 14일 개장한다. <사진> 수산물 특화시장은 지난 2002년부터 이전계획을 세워 건축비 71억원과 토지매입비 14억원 등 8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수산물 특화시장은 부지 9256㎡(2500평)에 연건평 7544㎡(2282평)의 지상 3층 본 건물과 지붕이 개폐되는



첨단 시설을 갖춘 아케이드 1동을 비롯한 250여개 점포로 구성됐다. 활어와 선어·멸치 등 건어물과 애매류 및 젓갈류·돌산갓치 등을 주로 판매할 예정이다.

시장 주변에는 3967㎡(1200평)의 주차장과 물양장 및 자외선 살균 해수처리 시설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중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대인동삼일부동산
(FAX)0223-177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사무 유리병원에서 50m지점
토지 매매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매매
▶매립종 준공업지역
▶골프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대도가 22억원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서귀벽진동 서귀정역 인근 6,561㎡(1,985평), 3.3㎡당 52만원.
자동차관련시설, 차고지,기다
합병 손볼 비대기 전원주택(교환가능)
▶합평권 손볼편 완원 안락해수목장 인근 대지 및 전 14,370㎡(4,347평) 연면적 178㎡(53평), 2층, 교환 가능함, 조망권 양호, 앞에 서해마다가 펼쳐있음, 아파트와 교환가능, 매매가 3억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김영희
062-364-8700
H. P.010-4608-37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평 면적/평 감평가 최저가 비교
▶근린상가
지역 소재지 근린상가 59평 39억2천원 1억 감평가 비인도료 비교
▶상가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교
▶부동산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교
▶토지(전/답/임야/대지)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교